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진행된 6개년 계획시기 대규모의 발전소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

최 성 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6개년계획의 전력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발전소건설에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까.》
(《김일성전집》 제54권 35페이지)

전력은 현대산업의 기본동력이며 전력 생산을 늘이는것은 나라의 경제전반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키기 위한 관건적문제로 나선다. 전력생산을 늘이자면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 63(1974)년 3월 7일 전국공업대회에서 하신 연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킬데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6개년계획의 전력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발전소건설을 적극 밀고나갈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여주시고 발전소건설을 6개년계획을 앞당겨 완수하기 위한 기본건설대상으로 규정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과업을 받아안은 기본건설부문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6개년계획의 고지들을 점령하는데 필요한 기본건설대상인 발전소건설을 기한전에 끝내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진행된 6개년계획시기 대규모의 발전소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기본건설부문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투쟁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화력발전소건설에 힘을 집중한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기본건설부문에서 북창화력발전소 제2계단공사와 청천강화력발전소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빨리 완공할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기본건설부문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선 북창화력발전소 제2계단공사에 힘을 집

중하였다.

북창화력발전소 제2계단공사를 힘있게 다그쳐 그 발전능력을 늘이는것은 자립적인 동력기지축성과 6개년계획시기 전력생산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6개년계획의 전력고지를 점령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북창화력발전소건설을 빨리 끝내는가 끝내지 못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북창화력발전소 제2계단공사를 빨리 다그쳐 완공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건설에 필요한 로력과 자재, 설비 등 제기되는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북창화력발전소건설에 떨쳐나선 건설자들은 계획된 공사과제를 하루빨리 끝내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려나갔다.

건설자들은 서로의 집체적지혜를 동원하고 백수십여건의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여 여러대의 보이라와 타빈발전기조립공사를 앞당겨 끝내기 위한 전투를 벌렸다.

건설자들은 건축공사가 끝날 때까지 앞서 기다린것이 아니라 설비조립속도를 부단히 높여나갔으며 날씨가 불리한 조건에서도 보이라와 타빈발전기조립기일을 3개월이나 줄이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그들은 설비조립을 앞당기기 위하여 수십차례의 기술협의회를 진행하고 모형시험을 해본 다음 그것을 실천에 옮기였으며 실패의 원인을 제때에 찾고 지상확대조립을 추진시켜나갔다.

건설자들은 마지막수압시험을 진행할 때 대기온도가 몹시 떨어져 일부 관속의 물이 얼기 시작하자 입고있던 솜옷을 벗어 불망치를 만들어가지고 관들을 녹여나갔다.

그들은 수압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여 설비조립공사를 결의한 날자보다 10일간이나 앞당겨 끝내고 불을 지켰으며 보이라 안전번시험과 발전기시험 등 모든 시험들을 성과적으로 끝내고 전력생산을 시작하였다.

건설자들은 이미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남은 보이라와 타빈발전기조립공사를 다그쳐 끝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었다. 그들은 수십여건의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이고 확대식조립비율을 92%이상 높여 공사속도를 종전보다 3배로 높이었으며 건축공사를 종전에 비하여 20일이나 앞당겨 끝내는 혁신을 이룩하였다.

특히 보이라조립을 맡은 6직장의 건설자들은 보이라조립속도를 늘이기 위한 방도가 기술혁신에 있다는것을 자각하고 3대혁명소조의 방조밑에 새로운 확대식조립방법을 받아들여 5개월이 걸려야 할 공사를 1개월 앞당겨 끝냈다.

한편 7직장의 건설자들은 4개월이 걸려야 할 타빈발전기조립공사를 3개월동안에 해제킴으로써 조립에서 놀라운 기록을 창조하였으며 북창화력발전소의 발전능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건설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6개년계획시기 북창화력발전소의 발전능력이 종전에 비하여 훨씬 늘어남으로써 나라의 동력기지가 더욱 튼튼히 꾸려지게 되었으며 발전소가 나라의 전력생산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하게 되었다.

기본건설부문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또한 청천강화력발전소건설에 힘을 집중하였다.

청천강화력발전소건설은 북창화력발전소건설과 함께 6개년계획의 전력고지를 점령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대상건설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청천강화력발전소건설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이 사업

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여러 기회에 청천강화력발전소건설을 다그칠데 대하여 밝혀주시고 건설력량을 튼튼히 꾸리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해주시였다.

건설사업소의 당조직들에서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건설을 집중화, 공업화할데 대한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건설자들의 심리적특성에 맞게 그들의 심금을 울리는 다양한 형식의 경제선동이 집중적으로 진행됨으로써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이 높이 발휘되었다.

청천강화력발전소건설에 펼쳐나선 건설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과업을 한치도 어길수 없다는 높은 각오와 불굴의 의지를 안고 발전소건설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갔다.

건설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부닥치는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 발전소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갔다. 그들은 왕성한 투지와 전투적기백에 넘쳐 공사장마다에서 속도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대상공사에 력량을 집중하고 맡은 공사과제를 섬멸전의 방법으로 해결끼였다.

건설자들은 방대한 설비조립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내고 청천강화력발전소의 준공을 성과적으로 보장함으로써 6개년계획의 전력고지를 점령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진행된 6개년계획시기 대규모의 발전소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기본건설부문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투쟁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으로 수력발전소건설에 힘을 집중한것이다.

전력생산을 늘이려면 나라의 풍부한 수력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이르는 곳

마다에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기본건설부문에서 대동강발전소건설과 서두수발전소건설이 6개년계획의 전력고지를 점령하는데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헤아리시고 발전소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빨리 완공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기본건설부문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선 대동강발전소건설에 힘을 집중하여 빨리 완공하기 위한 전투를 힘있게 벌렸다.

대동강발전소를 건설하게 되면 전력생산을 늘일수 있을뿐만아니라 평양시를 큰물피해로부터 믿음직하게 보호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대동강발전소건설을 다그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주체63(1974)년 5월에는 몸소 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시여 발전소건설에 필요한 모든 자재와 기계설비들을 우선적으로 생산보장해주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받아안은 건설사업소의 건설자들은 강재와 세멘트를 비롯한 건설자재들을 운반하는데서 기본고리인 다리건설을 한달동안에 해체길 대담한 목표를 내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리였다.

공무직장의 노동자들은 철근가공기구를 창안도입하여 다리보철근조립을 다그쳐나갔으며 다른 직장의 노동자들은 다리건설에 필요한 부재생산을 부쩍 늘어나갔다. 한편 설비조립직장과 공무직장의 노동자들은 치렬한 전투를 벌려 단 4일동안에 집체같은 대형대차식기중기를 자체로 만들어 다리에 올려놓는데 성공하였다. 그들은 다리건설을 계획하였던 날자보다 훨씬 앞당겨 끝냄으로써 발전소건설을 빨리 끝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건설자들은 건설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집체적지혜와 힘을 합쳐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해나가는 과정에 대담하고 통

이 큰 작전으로 건설설비들을 대형화, 현대화하였다. 그들은 발전소언제공사에서 가장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콘크리트타입작업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 작업에서 5배의 능률을 낼수 있게 하였다.

특히 건설자들과 기술자들은 수백만³의 기초굴착작업을 짧은 기간에 끝내야 하는 조건에서 1 000여개의 부속품을 새로 가공하여 전기식착공기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함으로써 기초굴착작업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발전소건설속도를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뿐만아니라 그들은 대형기중기를 10t능력으로부터 20t능력으로 개조하고 30t능력의 기중기와 콘크리트련속식 혼합설비도 자체로 만들어 리용함으로써 건설속도를 비상이 높여나갔다.

공무직장과 설비조립직장의 노동자들은 수문들을 자체로 만들어 설치하기로 결심하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힘찬 투쟁을 벌려 며칠사이에 여러개의 수문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하였다. 그들은 공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에 콘크리트다짐속도를 최고 6배로 높이였으며 착암기대신에 대담하게 착정기를 들이대여 건설속도를 훨씬 높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이와 함께 시추작업공사와 보조설비제작에서도 종전에 볼수 없었던 놀라운 건설속도가 창조되였다.

건설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6개년계획시기 대동강발전소건설이 힘있게 다그쳐짐으로써 당이 제시한 전력생산목표를 달성하는데서 참으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기본건설부문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또한 서두수발전소 제2단계공사도 힘있게 벌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서두수발전소 제2단계공사가 가지는 의의를 깊이 통찰하시고 6개년계획시기 발전소건설을 힘있게 다

그쳐 빨리 완공할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서두수발전소 제2계단공사에 펼쳐나선 건설자들은 공사를 당창건기념일전으로 끝내고 위대한 수령님께 승리의 보고를 올릴 충정의 마음을 안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나갔다.

제1직장의 건설자들은 한달이 걸려야 할 작업과제를 단 10일동안에 끝낼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하루를 열흘맞잡이로 공사를 다그쳐 첫 전투목표를 1.3배로 넘쳐 수행하였다. 그들은 부문별 중요대상들에 화력을 집중하여 3배나 높이 세운 일정계획을 매일 어김없이 수행함으로써 전반적인 공사기일을 앞당겨나갔다.

수차 및 발전기실공사를 맡은 제3직장의 건설자들은 공사기일을 앞당기기 위한 방도를 거듭 모색하는 과정에 새로운 혁신안을 찾아내였으며 공사를 근 7개월이나 앞당겨 끝내는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한편 제1직장의 건설자들은 새로운 기술혁신안을 적극 받아들여 공사속도를 3배로 높여나갔으며 제3직장의 건설자들은

4일이 걸린다던 공사과제를 단 26시간동안에 해체끼였다. 그리고 제4직장의 건설자들은 새로운 작업방법을 받아들여 100t 기중기를 불과 28시간동안에 조립해내는 위훈을 세웠으며 건축직장의 노동자들은 자체로 만든 콘크리트혼합물압수기를 잘 관리하고 그 능률을 훨씬 높임으로써 지형조건에 관계없이 콘크리트혼합물처넣기를 진행할수 있게 하였다.

서두수발전소건설을 맡은 건설자들은 발전소건설을 통하여 당과 수령의 사상과 로선을 충정으로 받들어 주체적인 대동력기지를 일떠세워나가는 조선로동계급의 영웅적기상을 다시한번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6개년계획시기 대규모발전소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전력고지점령에 크게 이바지한 건설자들의 그 투쟁정신을 본받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강성국가건설구상을 꽃피우기 위한 투쟁에 적극 펼쳐나섬으로써 부강번영하는 인민의 락원을 하루빨리 일떠세워야 할것이다.